

오전(1부, 노랑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사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동 우 칼 럼

미련을 버려라

목회 전, 나는 가끔 낚시를 즐겼다. 낚시를 하다 보면 대어를 눈앞에서 놓칠 때가 있다. 힘껏 끌어올리던 고기가 마지막 순간에 바늘에서 빠져나가면 그 허탈감이란... 그렇다고 놓친 그 물고기만 생각하다간 하루를 망친다. 깨끗하게 잊고 다시 미끼를 끼우고 더 깊은 곳을 향해 낚싯대를 던져야 물고기를 낚을 수 있다.

인생도 이와 같다. 많은 사람이 이미 지나간 일에 마음을 빼앗긴다. 잃어버린 재산, 놓쳐 버린 기회, 실패한 사업, 헤어진 사람, 지나간 영광...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현재를 잃고 미래마저 놓치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빌3:13~14).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라는 말은 과거라는 족쇄를 풀어버렸다는 것이다. 과거라는 족쇄가 발목에 채워져 있는데 어찌 달릴 수 있겠는가. 과거를 끊어내야 앞으로 달려갈 수가 있고, 그래야 미래를 향해 질주할 수 있다.

백미러만 본다면 운전이 가능하겠는가. 앞을 봐야 안전하게 원하는 목적지로 향할 수 있지 않겠나. 과거는 부도난 수표일 뿐이고, 흘러간 물로는 절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는데...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애굽이 좋았어. 그나마 그때가 나았지.’ 하며 과거만 돌아보니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도 못 들어간 것 아닌가.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 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사43:18~19).

혹시 지금 놓친 고기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가? 바다에, 강에 물고기가 놓친 그 물고기뿐이겠나. 더 큰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다시 밀밥을 끼고 낚싯줄을 던져라. 자리를 옮겨서라도.

놓친 고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자. 과거의 실패 대신 소망을 붙들자. 과거의 후회 대신 약속을 붙들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고기가, 더 큰 은혜가, 더 큰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무엇이고 심은 대로 거두리라

7월 말부터 시작된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대학청년부 연합수련회, 어린이 성경캠프, 그리고 2주간에 걸친 하계산상집회, 이 모든 여정을 아무 탈 없이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매 순간 사자가 포효하듯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하신 총회장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하계산상집회 두 번째 주간 첫 시간에 총회장 목사님은 ‘잘 사는 법’에 대해 말씀을 주셨다.

“가난이 좋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그럼 잘 살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럼요, 나도 가난은 싫습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가난해야 할 권리가 없다는 것です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 안 심은 데서 거둘 수 없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했습니다. 밭에 씨를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는 것이 이치이듯, 하나님께 많이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나는 것도 변해할 수 없는 이치입니다. 이는 액수나 양(量)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과부가 두 렵돈을 연보케에 넣는 것을 보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눅21:3). 주님은 과부의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색한 이나 억지로 드리는 물질을 하나님은 사양하십니다.

든요(잠8:21).

하나님께 드리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주시고, 십일조를 드리면 하늘 문을 활짝 열고 쏟아 부어주신다, 황충이 먹지 않고, 기한 전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고 약속하셨습니다(말3:10~11).

인색한 자식은 부모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세요. 사르밧의 과부는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 조금으로 주의 종을 먼저 대접했더니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도 마르지 않는 기적을 맛보았고, 죽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가뭄이 심할니까? 먹을 게 없습니까? 되는 게 없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심으세요.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 예수를 섬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



2026 하계산상집회 둘째주 집회 광경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고후8:9)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만 대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난까지도 대속하셨기에 우리는 가난할 권리가 없습니다. 어느 아버가 자식이 가난하여 궁상떨고 사는 것을 바라겠습니까? 목사인 나도 성도들이 가난하면 가슴이 아프고 저린데 말입니다.

그런데 왜 가난할까요? 심지 않아서입니다. 아무리 비옥한 땅이 있다 해도 땅에 씨앗을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합니다. 예전에 토레이 신부님이 내게 해 주신 말씀처럼, 땅은 절대 속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의 장로 중에 선불(先拂) 장로라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먼저 십일조와 헌물을 드린 후에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니 잘 될 수밖에 없지요. 그분뿐 아니라 많은 장로들이 하나님께 심어서 단칸방에 살던 분이 지금은 엄청난 부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심으면 납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납니다. 여러분, 사랑은 물질과 동반자 관계입니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물질에 인색하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지 못한다면 이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물질을 예비하고 계시거

운 루디아..., 모두 심어 많은 것을 거둔 자들입니다. 나 역시 누구보다 하나님께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잘 살아서 가난한 사람도 돕고, 보육원도 짓고, 교회도 짓고,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지어봅시다. 돈은 일단 악의 뿌리가 아닙니다. 잘 쓰면 일만 선의 뿌리입니다. 심어야 납니다.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둡니다. 할렐루야!”

우리, 배운 대로 실천하여 남에게 주며 사는 복된 삶을 살자. 내가 서 있는 땅을 기쁨지게 하자.

끝으로 집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시고,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묘수 전도사



즐거운 식사시간



아침식사 토스트 드시러 오세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고후10:3~8)



이론과 논리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어떻게 태양을 멈출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앓은병이가 일어나고,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며,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론과 논리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이론과 논리를 앞세우면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론과 논리 속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가끔 우리의 이론과 논리를 하나님 앞에 들이대며 말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논리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내 경험이 하나님의 한계가 아닙니다. 내 지식이 하나님의 능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도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고후10:4~5). 이걸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론과 논리가 ‘견고한 진’이라고 단정하고, 이걸 깨부수라고 합니다.

이론이나 논리로 따지자면 사도 바울을 당해낼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는 금수저 집안에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빌3:5~6).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나자 완전히 변했습니다. 자신의 간판과도 같았던 종교적 배경이나 학문적 배경들을 다 더러운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데 걸림돌이 될뿐더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그것들은 냄새나는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빌3:8~9). 그래서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고후1:19).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먼저 순종부터 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데요?”, “그게 가능해요?”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부터 해야 하나님이 일하

십니다. ‘예’라고 대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어느 날,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라고 말했습니다. 놀란 마리아는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눅1:34)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의 말은 합당한 말이었습니다. 남녀가 합해야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 초등학교도 아는 이론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눅1:37).

이 말에 마리아는 자신의 이론을 내 던지고 말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눅1:38). 마리아는 여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예’ 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가 된다고 하였고, 하늘의 뜻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창15:5).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쭈글쭈글한 자신을 봐도, 경수가 끝난 아내를 봐도 아이를 낳는다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과학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아브라함이 옳았습니다. 그래서 다 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았고, 첩 하갈에게서도 자식을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이론과 논리를 깨부수고 그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예’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히11:19)라고 적혀있습니다. 과거 죽은 몸 같았던 자신과 아내의 몸을 통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아들을 바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창22:17~18).

여호수아 6장을 보십시오. 우리 이론으로는 철옹성인 여리고 성을 공격하려면 그에 걸맞은 무기를 가지고 공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옛

새 동안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성을 일곱 바퀴 돌고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지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다고 무너지나?”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 했고 그대로 행했더니 성벽이 정말 무너졌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가진 이론을 버리고 ‘예’하는 것임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 곧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는 물고기 잡는 일에는 전문가였습니다. 어디에서 물고기가 잡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도 해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경험으로 보면 지금 그물을 내리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눅5:5). ‘내 경험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순종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한 것

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해서 그물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말씀이 자신의 경험과 일치하지 않지만, 그는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두 배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가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스스로를 죄인이라 고백하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 유입입니다. 체험했으니까. 경험했으니까. 신학적인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체험해야 전할 수 있습니다. 판매사원이 자기가 써보고 좋을 때 입에 거품을 물며 상품을 광고하는 것처럼. 사람을 기피하던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자 동네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가 죽었습니다(요11). 이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머무시다가 그곳에 가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덤의 돌을 옮겨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옵니다”(요11:39). 누구나 마르다의 말에 고개를 끄덕거릴 겁니다. 이론적으로 맞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요11:40). ‘네 이론을 버려! 순종해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시니 죽어 냄새까지 난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와 걸었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래야 나아만 장군처럼 문둥병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하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마음껏 일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처럼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라고 자신의 이론과 논리를 내려놓는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그 믿음의 경험을 통해 세상으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칼럼 ::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제2차 세계대전이 막 종식된 직후, 유럽의 한 연합군 구호소에는 부모를 잃고 극심한 굶주림과 공포에 떠는 수많은 고아가 모여 있었습니다. 구호소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아이들에게 따뜻한 잠자리와 풍족한 음식을 아낌없이 제공했지만, 이상하게도 아이들은 밤만 되면 극도로 불안해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며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들 때문에 구호소 직원들은 애를 태웠습니다. 이때 한 아동 심리학자가 한 가지 독특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 손에 작은 빵 한 조각을 쥐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효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아이들은 그 빵을 먹지 아니하고, 그저 손에 꼭 쥔 상태로 아주 평안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영혼의 질병은 ‘지금, 이 순간 배가 고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또 다시 어제처럼 배가 고프고 버려지면 어떡하지?’라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었습니다. 작은 손안에 빵 한 조각이, “내일도 너를 위한 따뜻한 양식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확실한 약속이자 보증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물질과 권력을 무차별적으로 거머쥐려 몸부림칩니다. 내일을 대비하

다는 명목하에 인간은 더 큰 욕심을 내며, 필요 이상의 것들을 끝없이 창고에 쌓아두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땅의 물질이 결코 인간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며, 다가올 죽음과 영원한 내세도 결코 보장할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눅12:16~21). 하나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라는 선포는, 현재 내 창고에 모든 물질이 가득 쌓여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고백의 본질은,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나를 변함없이 먹이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전능하신 ‘목자’가 지금 내 곁에 살아 계신다는 확신입니다. 선택하신 목자가 나와 동행하시기에, 인간을 염습하는 미래에 대한 모든 두려움과 근원적인 불안은 완벽하게 사라지고 진정한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몇 년 전 아들이 운전 중에 자동차 앞바퀴가 통째로 빠져나갔던 아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사람들의 걸음이 많은 도로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작은 충돌이나 인명 사고 없이 기적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어려움은 정금 같이 단련하여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욥 23:10)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인도하실 목자가 함께 계시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장영국 목사

:: 빛과 소금 ::

섬김의 기쁨

지난 7월 30일부터 2박 3일간 전국 대학 청년부 수련회가 장성 예루살렘기도원에서 진행되었다. 청·장년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련회 봉사에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렸다. 청·장년부에는 어린 자녀를 둔 가정부터 중·고등학생을 키우는 가정까지 다양한 연령의 가족들이 있다. 여름이 되면 청소년 수련회와 유치부·초등부 성경캠프, 산상집회까지 이어져 모두가 분주한 시간을 보낸다. 그런 가운데서도 뜻있는 가정들이 하루 이틀 연차를 내어 기도원으로 향했다. 한정된 휴가와 자녀들의 일정, 직장의 업무를 조정하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받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섬김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며 큰 은혜를 받았다. 봉사자들은 화장실과 수영장 청소, 침례식과 외국인 섬김, 야외 프로그램 지원 등 손길이 필요한 곳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우리가 청년이었을 때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렇게 섬겨 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음을 새삼 깨닫는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하시지 아니하고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섬김’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 시간과 물질, 건강은 우리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선물일 것이다. 우리의 작은 섬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기에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다. 그렇게 섬김은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해는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흘러보내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 없는 호수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데서 멈추지 말고,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가자. 그럴 때 우리 삶도 메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이 흘러넘치는 삶이 될 것이라 믿는다.

송지혜 집사

:: 오늘의 메시지 ::

분홍색 예수님과 솔로몬의 성전

성경을 읽던 중 마음 한구석에 깊은 의문이 남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지으라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기구 하나하나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은혜의 예표를 세심하게 담으셨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금 등잔대와 생명의 떡을 올리는 진설병 상은 유일한 빛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제사장이 손발을 씻는 물두멍은 말씀과 성령을 통한 지속적인 성화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성막이 성전으로 확장되면서 등잔대와 진설병 상은 10배로 늘어났고, 성전 벽에 창문이 생겨 ‘유일한 빛’이라는 의미가 다소 희석되는 듯했습니다. 물두멍 역시 12마리 뿔소가 받치는 거대한 뿔바다와 10개의 물두멍으로 대형화되며 고대 우상 형상을 연상시키는 듯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성전이 완성되

자 하나님은 구름과 불로 그 영광을 가득히 나타내시며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 달리 보임에도 왜 그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을까 하는 의문은 의외의 곳에서 풀렸습니다. 유치부 공과 시간에 아이들이 그린 예수님 얼굴은 분홍색, 초록색, 심지어 검은색으로 칠해져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격려하며 진심으로 칭찬해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겉모양이나 솜씨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 또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최고의 성전을 드리고 싶었던 ‘사랑의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외형과 틀에 얽매어 가장 소중한 마음의 중심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삭 전도사



:: 생명의 말씀 ::

우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300미터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마다 내비게이션은 같은 말을 반복한다. 순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조용한 내비게이션은 없을까?’ 만약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어떨까? 운전은 편할 것이다. 길을 잘못 들어도, 목적지와 반대 방향으로 가도, 과속해도 아무 말이 없다. 얼마나 자유로운가? 그런데 그 자유는 목적지를 잃게 만드는 자유다. 좋은 내비게이션은 운전자를 귀찮게 한다. 잘못된 길로 가면 곧바로 알려주고, 방향을 바꾸라고 말한다. 때로는 같은 말을 반복한다.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려고. 많은 사람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신을 원한다. 죄를 지어도, 욕심을 부려도, 삶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는 신이라면 부담 없이 믿을 수 있다. 이것이 우상의 본질이다. 우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인간의 욕망을 건드리지 않으니 언제나 편안하다. 그러나 살아 계신 하나님은 다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을 때 말씀하신다. “그 길이 아니다.”, “돌아켜라.”, “나를 따르라.” 때로는 그 말씀이 부담스

럽고 귀에 거슬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간섭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사랑이다. 오늘날의 우상은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돈과 성공, 안정, 명예, 심지어 종교 생활까지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상이 될 수 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욱 매력적으로 보인다. 결국 우상 숭배의 본질은 형상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다. 내 인생의 방향을 누가 결정하는가, 내 삶에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권리를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가 하는 문제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방향을 수정하는 데 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내비게이션은 편하지만, 목적지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우상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살아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바로잡으시고, 때로는 방향을 바꾸게 하시며, 마침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상은 내가 원하는 길을 허락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신다. 우상은 나를 바꾸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신다.

임택합 목사

목사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멕시코(Mexico)라는 나라를 2001년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총 48회 방문하여 무려 54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멕시코는 우리가 한국에서 진행했던 세계 목회자 영성세미나에도 가장 많은 목회자들이 참석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멕시코 사비나스(Sabinas)의 로헬리오(Rogelio) 목사는 한 이상을 본 후, ‘목사님이 멕시코에서 영적 군사를 훈련하여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복음화하시더라.’고 말했고, 한국에 왔던 멕시코 몬테레이의 헤라르도(Gerardo) 목사는 꿈을 꾸었는데, ‘목사님이 지구를 껴안고 눈물로 기도하시더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엠마누엘(Emmanuel) 목사의 방문을 보며 그 모든 하나님의 계시가 드디어 썩이 나고 앞이 나는 역사의 시작이 아닐까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엠마누엘 목사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젊은 시절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2008년 목사님이 멕시코 과달루페(Guadalupe) 집회에 가셨을 때, 그는 그 집회를 배설한 로헬리오 목사 교회의 청년 전도사였는데, 목사

님을 가까이서 뵙고 싶었으나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였고, 집회장 입구에서 목사님의 도서를 판매하는 일이나 하라고 했답니다. 그랬던 그가 목사님의 집회에 큰 은혜를 받고 꿈을 키우더니 개척하여 현재 몬테레이(Monterrey)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16년 만에 다시 그 도시를 방문하였을 때, 엠마누엘 목사는 공항까지 나와 옛날 사진을 보여주며 자기 교회로 목사님을 초청했고,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목회를 송두리째 바쳐놓은 옛 스승 앞에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았습다. 그가 한국을 찾아온 것입니다.

원래는 미국 캔자스시티(Kansas City)의 해리건(Harrigan) 목사, 그리고 자기 아내와 함께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리건 목사는 일정이 생겨 오지 못했고, 아내와 함께 오기 위해 비행기표도 다 구입하여 공항에 왔는데 그만 한국에서 비자를 내주지 않아 오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베네수엘라(Venezuela) 국적이어서 비자를 받아야 했던 걸 미처 몰랐던 겁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온전히 바란 대로 아무 거칠 것 없이 온전히 목사님의 교육을 단독으로 받을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항상 그랬듯이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은 그를 예수님처럼 영접했고, 최고로 대접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요13:20)는 말씀대로 말입니다. 아들딸인 그를 위해 목사님은 직접 동행하며 하나하나 가르치고 밤이 새도록 질문하는 그에게 성심성의껏, 정말 40여 년 사역의 노하우를 속속들이 보여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목사님 스스로,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자주 하실 정도로 흥분된 마음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특히 목사님이 1990년대 초반 목회하셨던 30만 평의 올림픽공원과 잠실 학생체육관, 그리고 메인스타디움을 피약별 아래서 둘러보고 설명을 들은 그는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올림픽공원의 5개 체육관을 오가며 비를 멈추고 태양을 가리며 예배를 드렸던 일, 모든 행사가 잡혀 예배드릴 장소가 없었을 때 기도했더니 홍수가 나서 모든 행사가 취소되었던 일, 그나마 아예 장소가 없을 때 트럭 위에 올라가 설교하셨던 일, 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새벽부터 신학생들과 성도들이 나와 단을 설치하고 의자를 깔았고, 끝나면 다시 다 철수했던 일들을 소상히 설명하자 놀라움을 금치 못하더군요. 그도 놀라워했지만, 메인스타디움까지 함께 돌아보며 들었던 생각은 ‘아! 우리가 그때 이걸 다 어떻게 했을까?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목사님이 아니면 과연 이런 사역을 누가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에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식사를 하다가 엠마누엘 목사가 질문했습니다.

“메인스타디움 집회를 하셨던 때가 이제 나이인 40대 초반이었다고 하셨는데, 만약 그 시절로 돌아가신다면 그때의 목사님에게 무슨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목사님은 그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지요. “참 잘했다.”라고 말해주고 싶다고요. 그리고 젊은 시절, 차라리 그때 결혼하지 않았다면, 더 온전히 하나님께 올인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란 말도 하셨어요. 그는 목사님이 말씀만 하시면 감탄하며 메모하기에 바빴습니다. ‘머리는 착각하지만 메모는 착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요.

목사님은 항상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나오길 바란다고 하시지요. 이는 목사님 자신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붙잡혀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이기에 더 실감이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

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요14:12).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에게 반하면 혁명을 일으킨다.” 그동안 목사님의 사역을 보고 목사님께 반하여 목사님을 찾아오고 목사님의 목회 노하우를 배우고 따르려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역으로 목사님이 그 찾아온 상대에게 반하여 40여 년의 목회 노하우를 골수까지 쏟아내는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수한 모습과 열정으로 자신의 삶을 드려온 목사님께서 정말 자신을 닮은 인물을 만난 까닭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목사님은 엠마누엘 목사에게, 월드컵이 열렸던 경기장에서 대집회를 열기 위해 합심 기도로 준비하고, 메인 방송을 사서 대대적으로 광고하여 대역사를 이루어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엠마누엘 목사는 물론 아멘으로 화답했지요. 목사님은 34년 전 메인스타디움 집회를 준비했던 노하우를 전해주시며, “내가 네 나이 때 했던 거다. 너도 할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엠마누엘 목사를 보며, 지난 25년 동안 목사님께서 멕시코에 뿌리신 복음의 씨앗, 피와 땀, 열정과 노력이 절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놀라운 결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기도원에서 단에 오른 엠마누엘 목사는 앞으로 자신이 목사님보다 갑절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는 종이 되고 싶다고 선포했었지요.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이제 그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과 목사님 앞에서 약속했던 대로 모든 성도들은 엠마누엘 목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한번 메인스타디움 집회처럼 놀라운 역사를 멕시코에서 이루어봅시다. 나이가 세계를 예수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는 원대한 꿈을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루는 예수중심교단의 종과 성도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영원히 남는 유산, 이초석 사도님께 드리는 헌정시 -엠마누엘 목사

42년 동안 말씀을 전하시며
42년 동안 주님을 섬기셨네
그리스도를 전하며 열방을 깨우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 받으셨네
기적과 자유케 하심이 그 길을 따라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보았네
온 땅의 모든 나라가 증인이 되었네
하나님께 충성된 한 사람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지
사도님의 삶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네
끝까지 충성하며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의 유산은 세대를 넘어 이어진다는 것을
이초석 사도님, 사도님의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의 스승, 나의 멘토, 나의 아버지
이 세대가 따라갈 귀한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사도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 삶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도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며
평생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은 사도님의 말씀에 지혜를 주시고
순종으로 이루어 갈 비전을 주셨네
목회자를 세우고 일꾼들을 일으키며
한 세대가 성장하도록 가르치셨네
사도님의 경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고
사도님의 가르침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네
수많은 영혼을 품고 섬기는
목회자가 되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셨네
열방이 보았습니다
다음 세대가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유케 하십니다
한 아버지가 사랑으로 심어 놓은 것을

오늘 그 자녀들이 이어받아
내일은 이 귀한 유산을 가지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전할 것입니다
이초석 사도님, 나의 스승. 나의 멘토, 나의 아버지
수많은 세월 동안 끝까지 걸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42년의 역사, 42년의 사랑,
그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세대가
사도님이 심으신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도님의 삶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월은 흘러가도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 유산은
영원히 말할 것입니다

2026년 8월 8일
나의 스승, 나의 사도, 나의 아버지
이초석 목사님께 드립니다